

한강 '소년이 온다' 배경 옛 적십자병원 개방

5·18사적지…내달 3~31일 일시 개방

2014년 폐쇄 이후 11년 만…개발 계획 모색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배경인 5·18사적지 '옛 광주적십자병원'이 11년 만에 개방된다.

광주시는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맞아 5·18사적 제11호인 '옛 광주적십자병원'을 다음달 3일부터 31일까지 일시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4년 폐쇄된 이후 11년 만이다.

개방 구간은 전면 주차장과 응급실, 1층 복도, 중앙현관, 뒷마당 등이며 관람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또 '멈춘 공간의 이야기, 그리고 새

로운 시작'을 주제로 한 전시도 31일 까지 펼쳐진다.

5·18 당시 현황 장면과 부상자 치료 모습이 담긴 사진을 비롯해 병원의 역사, 관계자 증언이 담긴 영상자료 등이 선보인다.

오후 1시30분 이후에는 5·18기념재단의 '오월해설사'가 상주해 관람객들에게 무료 해설을 제공한다.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부상자 치료와 자발적 현황이 이어졌던 역사적 장소다. 1996년부터 서남대학교병원으로 운영되다가 2014년 폐쇄됐다.



광주시는 사적지 보존을 위해 지난 2020년 7월 매입해 관리 중이며 관련 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TF)을 통해 보존·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옛 적십자병원이 한강 작가의 소설의

/김도기 기자

도, 관광 취약계층 4000명에

'행복여행' 선물

전남도가 관광 취약계층에게 여행 상품을 지원하는 행복여행 활동에 4000여 명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관광 취약계층 행복여행은 경제적 어려움과 거동 불편 등 문제로 여행을 누리기 어려웠던 관광 취약계층에게 실질적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 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이다.

1인당 당일 18만원, 1박2일(완도·진도·신안 섬지역) 38만원 상당의 여행상품을 지원한다. 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추가 지원한다.

지원 여행상품은 시·군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여행사에서 식사 2회, 유료 체험관광 등을 포함해 운영한다.

참여를 바라는 도민은 각 시·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시·군 관광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 모집 시기와 여행상품 운영 일정은 시·군별로 다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행복여행 활동 지원사업은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많은 도민이 여행으로 행복을 누리도록 더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화순 동북댐 관광개발사업 점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29일 광주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순 동북댐을 방문해 관광개발 관련 점검을 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전남, 해상풍력 지반조사 기술 공모 선정…5년 간 189억 확보

"해외 의존 벗어나 독자기술 개발로 국내시장 선점 기대"

전남도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구축을 위한 지반조사 성능기준 표준화와 기반기술 개발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현대스틸산업, 남진건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녹색에너지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했다. 이번 선정으로 오는 2029년까지

5년 간 국비 포함, 총 189억원을 확보했다.

국내 서남해 연안은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지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밀한 지반분석을 통해 침하나 전도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 효율성과 유지 관리 안정 성도 높일 수 있다.

국내 서남해 연안은 연약 지반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지반 조사가 필수적이다. 정밀한 지반분석을 통해 침하나 전도 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공 효율성과 유지 관리 안정 성도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지반조사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고품질 인증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김호 기자

기술 종속이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전남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술자립 기반 구축과 30GW 기준 1조 1000억원 규모로 전망되는 국내 해상풍력 지반조사 시장 선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으로 ▲유의파고 2m 이하 환경에서도 안정적 조사기술 ▲물리탐사·현장시험·실내 시험 통합분석 기술 ▲지반 정보 통합관리 방안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목포신항에 해상풍력 지반조사 실험시설을 구축하고, 고품질 인증 시스템도 갖출 계획이다. /김호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광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 honamnews@hanmail.net

"광주-대구 달빛철도, 에타면제 조속 확정"

광주경실련 "지역 소멸 대응 · 일자리 제공 시대적 과제"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9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광주-대구 달빛철도 사업은 대한민국의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고 영호남 간 오랜 갈등과 단절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새 시대를 여는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라며 "영호남 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대응, 청년 등 지역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를 제공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현정 사상 최초로 여

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해 통과 시킨 법안에 대해 에타면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는 영호남 지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화합, 지역갈등 해소라는 염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업은 이미 영호남 지역민들의 압도적 지지와 공감대를 얻었다. 정부가 외면한다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소멸 극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자체 없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의회, 화순 동북댐 관광개발사업 점검

망향정 부지는 오수 관리 어려워 부적합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29일 광주시민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순 동북댐을 방문해 관광개발 관련 점검을 했다.

예정하고 있는 망향정 인근 박물관 부지는 오수 관리가 어려워 상수원 관리 규칙상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경복지위원회들은 이날 화순 동북댐 망향정 인근에서 화순군이 추진할 예정인 박물관 조성 등 관광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앞서 환경복지위원회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개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동북댐을 포함한 해당 지역은 광주시민의 식수를 책임지는 상수원으로서, 단 1%의 오염 가능성도 용인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환경복지위원회는 현재 화순군이

2025광주세계양궁대회 '시민서포터즈' 모집

내달 23일까지…시민 3020명 · 대학생 240명 · 통역 30명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및 세계장애인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 서포터즈 모집이 시작된다.

광주시는 시민이 대회를 홍보하고 출전 선수를 응원하는 시민서포터즈 3290명을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민서포터즈는 시민 3020명, 대학생 240명, 통역이 가능한 시민 30명 등으로 구성돼 대회 기간 1일 3시간씩 활동한다.

광주시는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 뒤 6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7~8월 대회 조직위원회를 지원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조선주 기자

참여자에게는 응원 유니폼과 모자, 응원부채, 수건, 손국기 등 응원용품이 지급되고 활동시간에 따라 자원봉사 시간과 소정의 실비가 지원된다.

시민서포터즈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시청, 구청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광주시, 자치구, 대회 조직위원회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시민 서포터즈를 모집한 뒤 6월 발대식을 개최하고 7~8월 대회 조직위원회를 지원해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 /조선주 기자